

일요일 날 집안 식구들이 힘을 합쳐 대청소를 하고 나면 온 집안이 깨끗한 상태로 바뀐다. 대청소가 끝난 후 가장이 가족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훈시를 한다. "자 이제 청소가 완전히 끝났다. 지금부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물건을 쓰고 나면 꼭 제자리에 두고 집안에서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오늘 이후 대청소는 더 이상 없다."

그러나 가족들이 가정에 거주하는 한 '청소의 완전 종료'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아무리 주의해도 다음 날부터 거실과 방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고 가끔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경직되고 혼돈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다시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 두산 등 주요 재벌기업들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여론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떠오른다.

삼성은 누가 뭐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그룹이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된 데는



**불자 세상보기**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소장

**초심경영의 지혜**

선진국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반도체 등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데 열정을 불태운 고 이병철 회장의 집념과,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함께 경영을 선포한 이회 회장의 변화경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외환위기가 오기 전인 1995년 말부터 구조조정 작업을 해온 두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구조조정 성공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OB구조조의 지분 매각, 본사사육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 전체가 회생할 수 있었다.

최근 재벌기업의 내부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경영철학의 부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영철학의 부재는 도덕불감증이나 단기적인 기업가치에 매달리는 경영으로 이어진다. 10년 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며 비장한 장기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두산이 맞는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은 삼성이 말하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꿨다' 할 바로 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봉리 시

장경제의 원리를 제약하는 재벌개혁과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반기업정서 1위'의 오명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기업비난의 수준에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냄비가열이나 푸닥거리와 같은 이벤트식 해법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

이 문제의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까운 데서부터 찾고 긴 안목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각자가 초심을 되찾아 보고 모두가 스스로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 자신과 기업과 사회와의 상생적 관계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의무를 다하는 것, 더 나아가 투명한 사회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삼성과 두산 같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개혁은 삼성과 두산이 스스로 이룩해야 하며, 우리를 자신이 스스로 이룩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외국인 사회적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은 모두가 초심을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들의 혼돈상태가 주는 교훈은 지금이 바로 지혜경영 제1제인 초심경영의 지혜가 절실한 때임을 일깨워 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일반 직능 불교단체들의 활동이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찰의 불교회가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 불교회가 3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진정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비약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중의 지평이로서 늘 국민과 접하는 경찰에 이렇게 불교신행운동이 활기를 띠는 것은 참으로 힘나는 일이며, 내일의 불교에 밝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경찰 불자들, 그리고 경찰불자회의 활성화에 헌신적인 지원을 해온 모든 분들께 찬탄과 격려를 보낸다.

이제 제 2의 도약을 맞은 경찰불자회이기에 그 조직과 신행의 패턴도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앙조직과 단위조직이 탄탄한 기반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하나의 주문을 하고 싶다.

**든든한 '경찰불심'**

직능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한 중요한 이유는 불교를 그 직능에 접목시켜 독특한 신행문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지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에 머물러서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일반 사물에 나가는 것과 차이가 없는 직능 모임이라면, 단지 같은 직종에 있어서 인맥구축과 정보교환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그 모임이 활성화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불교의 이념을 내 직장생활과 연관시켜 직능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성공적인 직능인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신행문화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 경찰불자회라면 경찰 업무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경찰업무에 적합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행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등을 현장체험과 연결시켜 개발해 내어야 한다. 불자로서의 삶과 경찰로서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고, 또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관급직 발령문의 형태를 넘어선, 직능단체별 다양한 신행강령이 나오고 신행문화들이 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경찰불자회에 주마카편의 격려로써 이러한 기대를 보낸다.

**이렇게 들었다** 남북 화합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보거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며,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알리지 말지어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 주고 이해해 주면 이 세상에 화합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비새계경〉

이번 광복 60주년을 여느 광복절보다 뜻깊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북측 대표단과 함께 한 8·15 민족대축전일 것이다. 광복 60년이 지나서도 '분단의 광복절'을 맞이해야 하는 한반도의 슬픈 현실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 준것은 북측 대표단의 참가였다. 만일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서로 아무런 유대없이 제각각 고립된 행사를 가졌다면, 60주년을 맞은 광복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선열 앞에 남과 북 모두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국립헌정헌원을 참배하고,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해 방북 초청까지 했다.

북한 대표단은 과거처럼 남한체제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제도를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남북화해의 장애물이란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 보였다. 남한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돋보였다.

4일동안 남과 북은 서로 어울려 거리행진을 하고, 함께 공을 차고, 춤추며 노래하는 한 마당의 잔치판을 벌였다. 이 대축전이 의례적인 행사였다면, 심중팔구 그런 허탈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한 8·15 민족대축전은 공염불일 수 없다. 그것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 행진이 될 것이다. 아니, 행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핵문제 등 앞으로 산재해 있는 남북문제를 화합된 동포애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 김주일(현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주자장 경차 할인 돼야**

얼마전 설악산 소공원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냈다. 경차를 몰고 S사찰이 관리하는 소공원에 주차를 시켰는데 50%의 할인적용을 받지 못했다.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관리 사무소측은 "설악동지구에는 5개소의 주자장이 있지만,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50%할인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적용하고 있다. 사유시설인 S사찰지역의 소공원주차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덧붙여 "경차에 대한 할인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유자(S사찰)가 제도시행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 업자나 개인이 주자장을 관리한다면 휴가철 한철을 이용해 대목을 보려는 일박한 상술이겠거니 하겠지만 종교시설인 사찰이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경차의 주자장 할인을 외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조계종의 교구본사인 대행사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비록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2003년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경차에 대한 우대를 국가 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다.

경차의 주이용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사찰측이 이러한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비단 이 S사찰뿐만 아니라 중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할 불교계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신희숙(서울 청전동)

**일제 수탈문화재 회수해야**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일제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가 절실하다.

일제치하 36년간 한국불교는 수많은 문화재들과 사찰재산을 침탈당하고 각종 제도와 형식이 '일본화'되는 치욕을 당했다. 더구나 한국불교의 전통과 의식들도 뒤엎리고 사라져 갔다. 특히 적지 않은 불교 인사들이 친일행위를 함으로써 극도의 내외외환을 겪었다.

하지만 그런 오욕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불교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복 60년을 맞아 불교계도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본불교계와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재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한국불교를 지켜주신 선대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우상(뫼트뉴스)

**폐사지 보존에 관심을**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폐사지 보존을 위해 불교계와 정치권이 대책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현대불교' 539호 기사를 읽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폐사지와 인연이 깊은 곳이었는지 유독 관심있게 기사를 읽었다. 내가 사는 경기도 죽산만 하더라도 이전에 절터였던 곳이 한 두 곳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미륵굴이나, 부처굴이나 하는 지명만 봐도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하지만 지금은 변변한 사찰조차 한곳이 없다.

마을 인근이 모두 절터였다는 어린시절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불교를 신행하면서부터 이러한 현실이 여간 안타깝지 않았다.

이처럼 폐사지 보존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불교계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늦게나마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에 폐사지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 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우리불자들이 먼저 시민운동차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폐사지를 신고하고 더 이상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미정(안산시 죽산면)

**'연대' 민명** 심민섭

조계종 선원수좌회

수행풍토 쇄신!!

산천까지 덮고 있으니...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금고, 범종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대창빌딩 1층  
전시관: 02)2209-0080  
공 장: 031)591-1022  
휴대폰: 011-302-1022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  
대표 이상식 함장

**심마니 토종 오가피**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실험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직접 현종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요소준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종F&B** 02)455-1114  
HYUN PUNG F&B CO.LTD

**심봤다! 제2의 산삼**